

「점토대토기문화의 정착과정과 사회분화 - 전북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김규정
(전북문화재연구원)

송종렬 선생님의 발표문은 만경강 일대에서 최근까지 조사된 점토대토기문화 유적을 통해 당시의 수로교통의 이점이 유적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으며 모두 7개의 거점권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거점권역에 1개소의 유적 내에서 입지를 달리하여 상위 유력자의 무덤이 축조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위신재의 비교를 통해 각각의 군집내에 상위 유력층의 분묘가 확인되고 이러한 계층화는 기원전 4세기 이후 고조선의 관료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특히 발표자는 전북 서부지역에 이주한 점토대토기문화 집단이 초기에는 여러 거점권역에 흩어져 있다가 철기의 등장과 함께 원천권을 중심으로 재편되며, 원천권에 점토대토기문화 집단의 힘이 집중되고, 대규모 군집묘 속에 묘역을 달리한 군집묘들은 당시 사회분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 이는 곧 이 지역 마한 소국 형성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았다.

전체적인 틀에서 발표자의 의견에 토론자도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일부 의견이 다른 부분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발표자는 이전 논고(송종렬 2015)에서는 점토대토기문화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집중된 만경강 남쪽일대(전주완주지역)를 완주권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발표문에서는 지역을 세분하여 소하천을 중심으로 7개의 거점권역으로 나누면서 유적이 형성될 당시 조수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참고하였다. 청동기시대든 그 이후 시기든 조수의 작간접적인 영향에 따라 유적이 분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오히려 소하천을 중심으로 너무 세분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세분하여 지역권을 분류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의 유적의 분포와 군집양상으로 볼 때 전주완주 일대의 만경강 상류, 익산 일대의 만경강 중류, 김제 일대의 만경강 하류로 구분한 논문(한수영 2015)이 참고 된다.

둘째,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발표자는 7개의 거점권역으로 나누었지만, 거점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유적은 거점권역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원천권과 인접하고 있지만, 원천권에 포함되지 않은 만성동, 장동유적의 경우 조춘천이 있지만,

넓게 보면 원천권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천과 조촌천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셋째, 익산 오룡리와 구평리의 경우 만경강 수계인 기양천권에 포함시켰는데 발표자의 소하천 중심의 권역 분류에 따르면 만경강유역권 보다는 금강수계권의 부곡천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정확하다. 혹시 기양천권에 포함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아울러 토론자는 지금까지 전북지역에서 조사된 점토대토기문화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로 볼 때 다송리, 오룡리 유적 등 금강수계권의 유적들이 만경강수계권의 유적보다 이른 시기에 형성되었으며 늦은 시기가 되면 만경강유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규정 2014).

넷째, 발표자는 토광묘의 크기를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분류하였다. 대형과 초대형의 경우 원평천권에서 조사된 1기를 제외하면 모두 원천권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원천권에서 조사된 토광묘는 110기로 다른 권역에서 조사된 토광묘에 비해 수적으로 월등하게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출토유물에 있어 차별화를 지나치게 상위 혹은 최상위의 토광묘로 보고 있는데 동일한 군집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계화는 보이지만, 이를 과연 최상위의 묘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특히 신흥-덕동과 인접한 원장동 1호의 경우 유물의 수량을 보면 토기와 철기를 제외하고 단일 유구 가운데 청동기의 부장량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상위 묘로 보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수영 선생의 논문(한수영 2015)이 참조된다. 한수영 선생님에 따르면 전북지역 초기철기문화는 유입기-발전기-융성기-쇠퇴기 등 IV기로 구분하고 성립기의 분묘는 익산 북부가 중심이며 이후 중심권역이 만경강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II기(발전기)부터 계층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토론자는 조사된 분묘들이 모두 동일시기에 축조된 무덤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규모와 유물의 부장양상의 차이가 곧 위계화는 의미한다고 보지만, 축조시기가 다를 경우 규모와 부장양상이 다르더라도 이를 위계와 직접 연관된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보충 설명을 부탁드린다.

다섯째, 발표자는 생활영역과 매장영역으로 구분하여 특히 원천권의 경우 점토대토기가 등장하는 시기부터 철기가 등장한 이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원천권에서 점토대토기 등장기의 유구는 뚜렷하지 않다. 다만 AMS연대를 참고할 때 생활유적의 경우 등장기로 볼 수 있지만, 분묘의 경우 등장기의 유적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분묘 110기 이상 확인된 것에 비하면 주거지는 10기 밖에 조사되지 않았다. 원천권에서 조사된 유적은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지만, 대규모의 군집묘를 축조하고 있는 세력의 생활유적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혹시 발표자께서 생활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발표자는 각 유적별 상위 유력층의 분묘와 위계화를 살펴보면 신평유적은 의례와 관련된 계층, 원장동유적은 武와 관련된 계층, 갈동유적은 생산과 관련된 계층의 분묘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대군집묘 내에서 나타나는 묘역별 계층화는 기원전 4세기 이후의 고조선의 관료체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았다. 또한 여의동과 효자4유적 적석목관묘를 재지세력의 유력자무덤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유적에서 의례, 武, 생산관련 유물은 단 1기에서 밖에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곧바로 특정 집단의 묘역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토론자의 보충설명을 듣고 싶다.

〈참고 문헌〉

- 김규정 2014, 「益山 靑銅器文化圈과 馬韓」 『馬韓百濟文化』 23,
 송종열 2015, 「만경강유역 집토대토기문화의 정착 과정」, 『호남고고학보』 50.
 韓修英 2015, 『全北地域 初期鐵器時代 墳墓 研究』 全北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